이달의 으뜸중기제품 고려도토 '깨끗한 뚝배기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에서도 이물질 걱정 없는 깨끗한 뚝배기

손완호 고려도토 대표가 '깨끗한 뚝배기 하이라이트'의 평평한 바닥 표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닥 평평해 열전도율 높아 노랑·빨강색 제품 내놓을 것

가격 3배 비싸도 수명 6배 지난 한달간 400곳서 주문

전통 그릇 뚝배기의 불편한 진실 하나. 뚝배기 표면에는 무수한 구멍이 나 있어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로 제대로 씻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이 스며들기 쉽다. 스며든 이물질은 뚝배기에 뜨거운 물을 넣고 끓이면 다시 새어나와 위생상 문제가 된다. '깨끗한 뚝배기(깨뚝)'는 도토(도자기 흙) 전문기업 고려도토가 뚝배기 표면에 기공을 없애 흡수율을 0%로 만든 제품이다. 고려도토는 일반 가스 불 외에도 하이라이트(전기레인지)에서 쓸 수 있도록 개선한 '깨뚝 하이라이트'를 올해 1월 새롭게 내놨다.

◈전화 100통 받고 개발

일반 깨뚝(깨뚝 클래식)은 다른 뚝배기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굽이 있어 가스 불이 아닌 하이라이트 위에선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바닥이 하이라이트 표면과 맞닿아야 하는데 굽 때문에 사이에 뜨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깨뚝 하이라이트는 이 점을 개선했다.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열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 표면을 갈아 평평하게 하는 후공정을 추가했다. 평평한 바닥에는 내열성 종이를 붙여 디자인적인 상품성을 높였다.

고려도토가 깨뚝 하이라이트를 개발하는 데는 6개월이 걸렸다. 계기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요구였다. 손완호 고려도토 대표는 "깨뚝을 가스 불뿐 아니라 하이라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화를 100통 가까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생 등의 이유로 깨뚝을 구매하는 소비층과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하이라이트를 설치하는 소비층이 크게 겹친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형태·색상 선보일 것

고려도토는 1986년 설립됐다. 도자기 흙만을 전문 생산하다 이물질을 흡수하지 않는 뚝배기를 만들 흙을 개발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2000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17년에 걸쳐 흙과 유약을 개발했지만 비싼 단가 때문에 주문하는 곳이 없어 직접 뚝배기를 제작해 내놓은 것이 깨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GS홈쇼핑, NS홈쇼핑 등 각종 홈쇼핑 채널에서 깨뚝을 선보여 이번달까지 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중 깨뚝 하이라이트 판매량이 절반을 차지한다. 손 대표는 "깨뚝 하이라이트 제품이 2000원 더 비싼데 판매량은 일반 깨뚝과 별 차이가 없다"며 "다음달에는 전골 그릇 형태의 깨뚝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에는 뚝배기 하면 떠오르는 짙은 갈색 대신 노란색 주황색 등 다양한 색상을 입힌 깨뚝을 내놓을 예정이다. 손 대표는 "다양한 색깔의 유약 개발을 80% 정도 끝냈다"며 "원색계열 색상뿐 아니라 감각적인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제품보다 경제적

깨뚝을 사용하는 음식점도 늘고 있다. 지난 한 달 음식점 400곳에서 깨뚝을 주문했다. 위생상 장점 외에도 유지비 등에서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곰탕용 기존 뚝배기 가격은 3500원 정도지만 같은 크기 깨뚝은 1만원이다. 손 대표는 "기존 뚝배기는 수명이 2~3개월인데 깨뚝은 1년 이상 버텨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이라며 "기공이 없어 열전도율이 우수해 가스비용을 20% 절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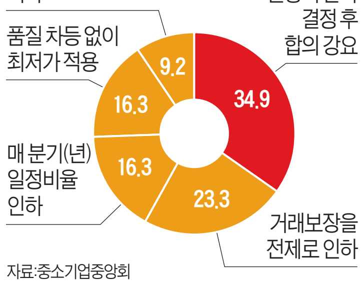
밀양=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페인트팜-스크린페인트 'S-Paint' (042)381-3339 △지오아이티-Z-BIKE (042)471-2777 △고려도토-깨끗한뚝배기 '하이라이트' (055)355-1679 △GEC-비상용 스노 체인 'SNO-STOP' (062)955-4895

납품단가 부당요구 받아도… 中企 62.8% 대책 없이 수용

중기중앙회, 300곳 설문조사 14.3% 부당납품단가 경험



선박부품 제조업체 A사는 단가협상을 할 때면 대기업 구매담당자에게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받는다. 사정 반·협박 반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지만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의류잡화 부자재 제조업체 B사는 대기업으로부터 단가 인하를 위해 연매출에 육박하는 고가 장비를 사도록 지시받았다. 심지어 해당 대기업은 스스로 견적서를 작성해 B사에 납품을 지시한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4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를 조사한 결과 14.3%의 기업이 이처럼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9%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뒤 합의를 강요했다"고 답했다.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나 됐다. 협력업체들은 부당 납품단가를 강요받은 이유로 '거래처의 가격경쟁에 따른 원가 인하 전가'(58.1%)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원가 인하'(9.3%) 등을 꼽았다.

특히 부당한 납품단가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62.8%는 이를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고 답했다. 납품을 거부한다는 업체는 4.7%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경험과는 무관하게 응답기업의 25%는 "대기업과 자유롭게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거래처의 우월적 태도'(33.3%), '납품단가 인상 가능성 희박'(29.3%), '거래단절이나 물량 감소와 같은 보복'(20%) 등이 꼽혔다. 매출별로는 '1억~5억원 미만'(33.3%)의 소기업이, 업종별로는 '조선'(19.3%)이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한미약품 신약, 임상 3상서 효능 입증

美 비뇨기과학회서 발표

한미약품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성분과 발기부전 치료성분을 하나로 합한 '구구탐스'의 임상시험 3상 결과를 미국 비뇨기과학회(AUA)에서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구탐스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성분 탐스로신과 발기부전 치료성분 타다라필을 하나의 캡슐에 담아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한미약품이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을 동반한 한국인 남성환자 492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구구탐스를 투여한 실험군의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타다라필 단일 투여군 대비 27% 감소했다. 그러면서도 성 기능 개선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구구탐스가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을 동반한 환자의 약물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불공정거래 개선요구 불응 중기청, 4개社 징계

한국특수재료가 중소기업청의 수·위탁 불공정거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아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중기청은 21일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등 4개 기업이 불공정거래 개선요구에 불응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에 벌점 2.5점을 부과하고 교육명령 조치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순신 장군에 빠진 강소기업 CEO들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이순신 장군 리더십 탐구

윤동한 콜마 회장 김종대 前 재판관

국내 강소기업 모임인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산하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들이 '이순신 장군 리더십'에 흠뻑 빠졌다.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는 지난 4월부터 매주 화요일 회원사 CEO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순신의 생애와 정신'을 주제로 회원사 교육과정을 열고 있다.

총 9개 강의로 구성된 교육과정에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창식 서울시 중구청장, 이재인 법무법인 한결 고문(이순신학교 교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각계 이순신 장군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오는 현충일에는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한산도를 탐방하는 등 현장학습도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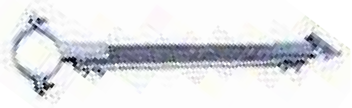
이들이 이순신 장군 리더십 확산에 나선 것은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장인 윤 회장이 이순신 연구 전문가인 김 전 헌재 재판관과 의기투합하면서다. 김 전 헌재 재판관이 지난해 6월 부산에 여해(汝諧)재단을 설립하면서 시작한 '이순신 아카데미 1기'에 윤 회장이 참석했다. '여해'는 이순신 장군의 자(字)다. 이순신 리더십을 더 많은 기업인에게 확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윤 회장은 지난 2월 서울 여해재단을 세워 강소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이순신 장군 리더십 과정을 열었다.

김대연 윈스 대표, 김인호 네오바이오텍 대표 등 20여 명의 CEO와 임직원은 "사랑, 정성, 정의, 자력(自力)으로 대표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가치는 기업 경영 현장에 접목하고 인생의 좌표로 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 CEO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코리스이엔티, 美 안전규격 인증 획득

흔들림방지 버팀대 수입 대체



금속 구조재 전문 중소기업인 코리스이엔티가 흔들림방지 버팀대(사진)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미국 안전규격인증(UL)을 획득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부터 건물 내 소방배관에 사용하는 흔들림방지 버팀대에 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고시했다. 소방배관은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는 건물 천장 스프링클러와 연결돼 있다. 소방배관용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으로 배관이 뒤틀리거나 파손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은 인증받은 국산 제품이 없어 흔들림방지 버팀대 국내 시장은 수입 제품이 장악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코리스이엔티는 1900억원 규모 수입대체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코리스이엔티는 내년 상반기 흔들림방지 버팀대 디자인을 다양화해 출시할 예정이다.

표지웅 코리스이엔티 대표는 "기존 버팀대에 비해 부속품을 단순하게 만들어 고장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였다"며 "100% 국내 생산하기 때문에 납기일을 맞추는 데도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